

중국 거시경제 형세와 전망

- 18대 경제와 중앙경제 공작회의에 대한 이해

2013년 제1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중국 거시경제 형세와 전망
2. 일 시 : 2013. 1. 24 (목) 16:00~18:00
3. 발표자 : 국가신식중심 경제예측부 주바오량(祝宝良)

1. 18차 당대표 회의에서 제시한 경제업무

가. 지난 10년 총결

- 경제가 안정적이고 빠르게 성장하였고 사회생산력, 경제, 과학기술이 한층 더 발전하였음.
 -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성장: 2001-2005년 (10.5) 9.8% → 2006-2010년 (11.5) 11.2% → 2002-2012년 10.4%
 - 경제구조에서 거둔 성과: 도농지역의 조율성 제고, 인프라시설의 전면적인 강화, 혁신형 국가 건설의 효과(우주, 심해 잠수, 고속철도 등)
- 개혁개방이 성과를 이루고 종합국력, 국제 경쟁력, 국제 영향력이 한층 더 발전하였음.

- 농촌에 대한 종합개혁과 산림 집체 소유권 제도 개혁
- 세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 금융: 금리 시장화, 환율
- 시장체제, 가격개혁
- 수출입, 외자이용, 대외투자

□ 국민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국민 생활수준, 주민소득, 사회보장 수준이 한층 더 발전 하였음.

- 2011년 일인당 GDP는 5,070달러에 달해 중등소득 국가에 진입
- 도농 기본 양로보험 제도 및 의료보험 제도 구축
- 보장성 주택 건설

□ 주요 문제점

- 불균형, 부조화, 지속불가능한 문제점이 여전히 두드러짐.
- 과학기술 혁신능력이 취약
- 산업구조가 불합리하고 농업기반이 여전히 취약
- 자원 환경 제약의 심화
- 도농 간 지역격차와 주민소득 분배 격차가 큼.
- 체제 메커니즘의 장애가 많음.

□ 중진국 함정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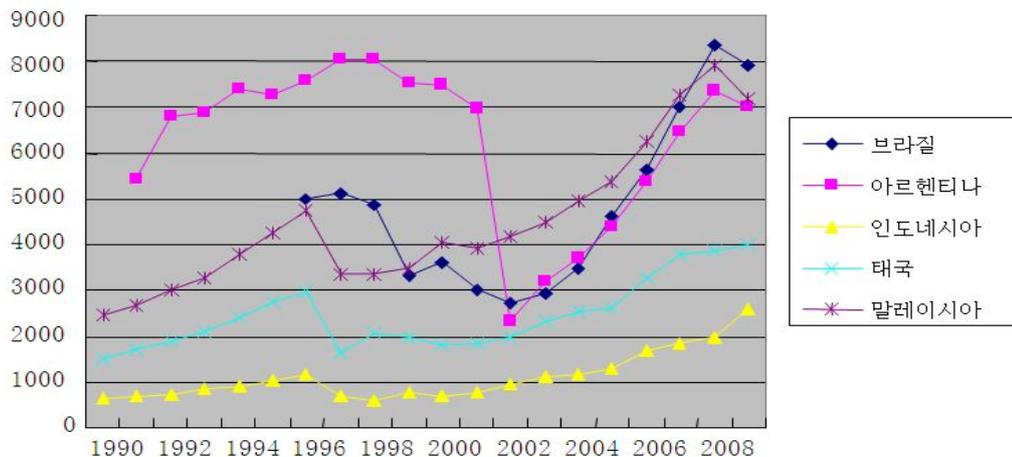
- 2010년 8월, 세계은행의 중진국(지역) 기준
 - 저소득 국가: 일인당 GDP 995달러 미만, 62개 국가
 - 중소득 국가: 일인당 GDP 996~12,195달러, 104개 국가임. 이 중 996~3,845달러는 중저급 수준이고 3,845~12,195달러는 중상급 수준
 - 고소득국가: 12,195달러 이상, 66개 국가

- 2009년과 2010년 중국의 일인당 GDP는 각각 3,700달러와 4,400달러를 달성하였음.

- 중진국 함정

- 국가의 일인당 GDP가 중등소득에 달한 후 성장 동력 둔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정체됨.
-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국가는 1970년대에 중등소득에 달한 후 2010년까지 여전히 3,000~10,000달러에 머물러 있었음.
-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몰타 등 국가가 선진경제국에 진입하였음.

<그림 1> 일인당 GDP 추이 (달러, 현가)



- 중진국 함정 원인

- 소득분배의 불균형: 복지정책(福利赶超)과 포퓰리즘
- 도시화 문제: 과도한 도시화와 슬럼
- 금융체계 문제: 화폐의 자유로운 환전과 자본 자유화, 금융체계 외부 충격
- 산업경쟁 압력: 요소견인에서 혁신 견인으로, 전문화, 규모경제로 전환
- 인적자본 육성과 임금상승: 루이스 전환점과 인구 보너스

- 경제성장이 빠른 국가의 공통된 특징:
 - 안정적인 거시 경제 유지, • 시장을 통한 자원배치, • 유능한 정부, • 국제 경제성장의 기회 활용, • 높은 저축율과 투자율

- 루이스 전환점과 인구 보너스

- 노동비용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첫 번째 전환점이 나타나고, 농업과 비농업 노동자의 한계 생산력이 일치할 때 두 번째 전환점이 나타나며, 이때 이중구조가 소실됨.
- 인구 보너스 전환점: 2013년에 중국의 비생산인구에 대한 생산인구의 비율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15~64세 인구가 최고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1960년 첫 번째 루이스 전환점에서 1990년 인구 보너스 전환점까지 30년의 시간이 소요.
- 한국: 1972년 첫 번째 루이스 전환점에서 2013년 인구 보너스 전환점까지 30년이 소요.
- 중국: 2004년 첫 번째 루이스 전환점에서 2013년 인구 보너스 전환점까지 9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중등소득 탈출 시간

- 중등소득 단계: 일본 1966~1985년까지의 19년, 한국 1977~1995년까지의 18년, 싱가포르 1971~1990년까지의 19년, 홍콩 1971~1990년까지의 18년
- 중상소득 단계: 일본 1973~1985년까지의 2년, 한국 1988~1995년까지의 7년, 싱가포르 1979~1990년까지의 11년, 홍콩 1978~1989년까지의 11년
- 중국: 2000~2009년까지 9년의 중하등 소득 국가, 2010년 이후 중상등 소득 국가에 진입

나. 중국의 발전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에 있음.

□ 국제적으로 본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내용과 여건

- 평화와 발전이 여전히 시대 주제

- 경제 글로벌화 발전의 심화
- 과학기술 혁명의 새로운 발전
- 다원적이고 전면적인 국제협력의 확대

□ 세계경제의 저속 성장

- EU의 구조적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중 핵심은 국가별 노동생산성 격차를 해결하는 것임. (단위 노동원가의 수렴, 현재 20% 내외의 격차가 존재)
- 일본의 노령화 문제가 심각함.
- 미국경제의 우위가 현저하고 전망이 좋음.
 - 노동시장의 유연성
 - 셰일가스 가격
 - 정보기술과 제조업

<표 1> 세계 주요 경제체의 경제 성장률 예상 (%)

국가/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세계경제 (구매력 평가환율)	-0.7	5.1	3.5	3.3	3.6
(시장 환율)	-1.9	4.1	2.8	2.6	2.9
선진경제국/지역	-3.7	3	1.6	1.3	1.5
미국	-3.1	2.4	1.8	2.2	2.1
유로존	-4.4	2	1.5	-0.4	0.2
일본	-5.5	4.5	-0.8	2.2	1.2
신흥 및 개발도상국/지역	2.8	7.4	6.2	5.3	5.6
중국	9.2	10.4	9.3	7.8	8.2
인도	6.8	10.1	6.8	4.9	6
러시아	-7.8	4	4.3	3.7	3.8
브라질	-0.2	7.5	2.8	1.5	4
남아공	-1.8	2.8	3.1	2.6	3
세계무역 총량	-10.7	12.6	5.8	3.2	4.5
석유가격	-36.3	27.9	31.6	2.1	-1

□ 각국의 시장과 자원 경쟁

- 각국의 생산과잉
- 에너지와 자원 쟁탈

□ 국제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촉진

- 각국 중앙은행의 자산 부채 규모
- 유동성 증대를 통한 채무 유지
- 자원가격에 대한 압력

□ 중국의 기회

- 과거의 국제 분업체제 참여, 수출확대, 투자 가속화 기회가 아님.
- 내수확대, 혁신 향상, 경제성장 방식 전환의 기회임.

다. 소강사회(小康社会)의 전면적 건설

□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

- 경제성장의 질과 효과를 핵심으로 함.
- 2020년 GDP와 도농 일인당 소득은 2010년의 2배를 실현하고, 2011년의 GDP 성장률은 9.3%였지만 이후의 8년간은 6.9%를 목표로 함.
- 공업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도시화를 대폭 제고시킴.

□ 국민생활 수준의 전면적인 향상

- 인재 강국에 진입
- 소득격차의 축소, 중등소득층의 지속적인 확대
- 전체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과 주택 보장체계의 기본적인 형성

□ 중국 경제성장 잠재력의 하락

- 중국 경제성장 잠재력에 대한 추산

- 잠재 경제성장률=2.9%+0.525*자본성장률+0.475*노동력 증가율
- 1978~2011년, 자본스톡의 연 평균 증가율이 11.3%이고 GDP를 5.9%p 견인하였음. 노동력 연 평균 증가율은 1.9%이고 GDP를 0.9%p 견인하였음.
- 인구요인은 경제성장에 대해 최소 2%p의 영향을 미침.
- 총요소 생산성의 연간 기여도는 3.1%p임. 하지만 노동력 이전, 외자 및 대외무역의 기술진보와 관리수준의 향상, 교육과 R&D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음.

<표 2> 총요소 생산성의 요인분해

	총요소 생산성 분해	기여도 (%)
노동력 이전	1.3	41.9
외자와 대외무역 기술의 spillover	0.9	29.1
인적자본과 연구개발	0.9	29.0
합계	3.1	100

- 중기내 잠재 경제 성장

- 연 평균 노동력 증가율이 제로로 예상됨. (2013년에 생산인구가 최고점에 달한 후 인구 보너스가 소실되고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할 것임)
- 대규모 인프라시설 투자 증가율이 완화되고 자본스톡 증가율이 10% 내외로 예상된다.
- 총요소 생산성은 혁신에 의해 견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잠재 경제성장률은 8% 내외임.
- 실제 경제성장률도 8% 내외임.

라. 사회주의 시장체제의 완비와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 네 가지 "새로움"

- 각종 시장주체의 새로운 활력을 활성화시킴.
- 혁신에 의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증강시킴.
- 현대산업의 새로운 체계를 구축함.
- 개방형 발전의 새로운 우위를 육성함.

□ 다섯 가지 "더욱 많이"

- 내수(특히 소비수요)에 더욱 많이 의존
- 현대 서비스업과 전략적 신흥 산업에 더욱 많이 의존
- 과학기술 진보, 노동자 자질 향상, 관리 혁신에 더욱 많이 의존
- 자원절약과 순환경제 추진에 더욱 많이 의존
- 조화로운 도농지역 발전에 더욱 많이 의존

□ 다섯 가지 임무

- 경제체제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 발전
 - 시장과 정부 사이의 관계 처리
 - 지방세 체계 구축
 - 공공자원 양도소득의 합리적인 공유 체제 구축
 - 민간 금융기관의 발전 추진
- 혁신 견인 전략을 추진함.
- 경제구조 조정을 추진함.
- 도농발전의 일체화를 추진하고 도시화는 내수확대의 가장 큰 잠재력임.
- 개방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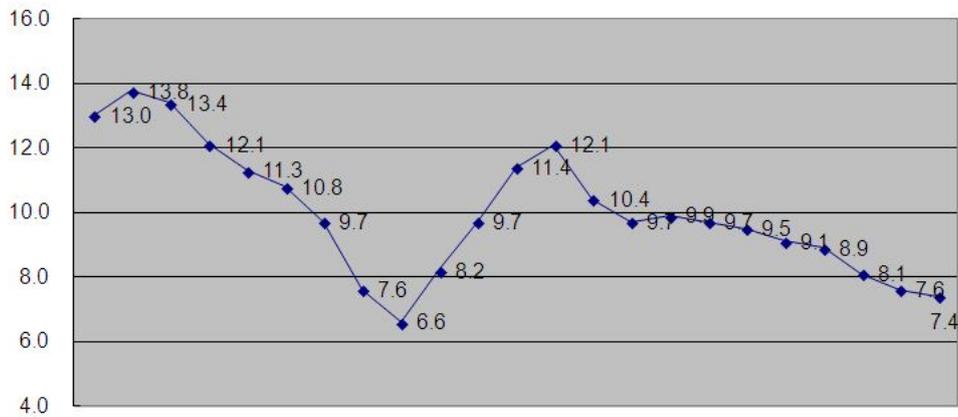
2. 기존 경제 형세와 중앙경제 공작회의의 내용

가.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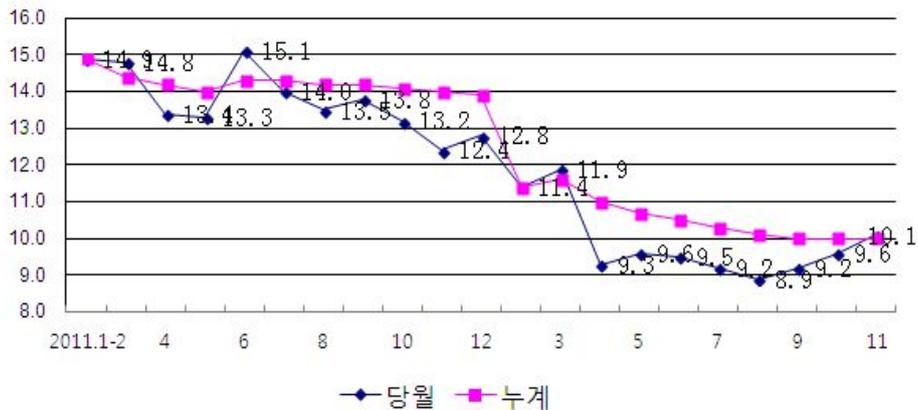
□ 완만하지만 안정적인 경제 성장

- 2012년 1/4분기~3/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7.7%로 전년 동기대비 1.7%p 하락하였음.
- 2012년 1-11월, 규모 이상 공업은 10% 성장하여 전년 동기대비 4%p 하락함. 중공업은 9.8% 성장하여 전년 동기대비 4.6%p 하락하고 경공업은 10.2% 성장하여 전년 동기대비 2.8%p 하락하였음.
- 9월부터 공업 성장속도가 다시 상승하였음.

<그림 2> 전년 동기대비 GDP 성장률 (2007년 1분기~2012년 3분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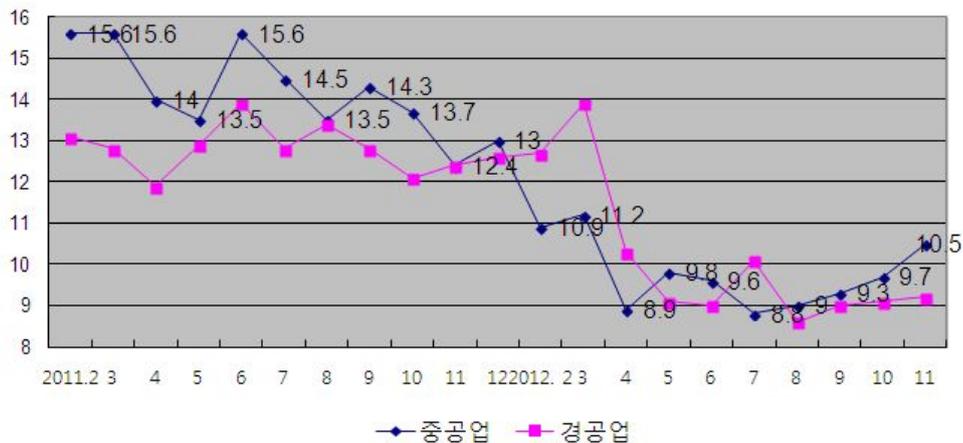
<그림 3> 공업 부가가치 (% , 당월 및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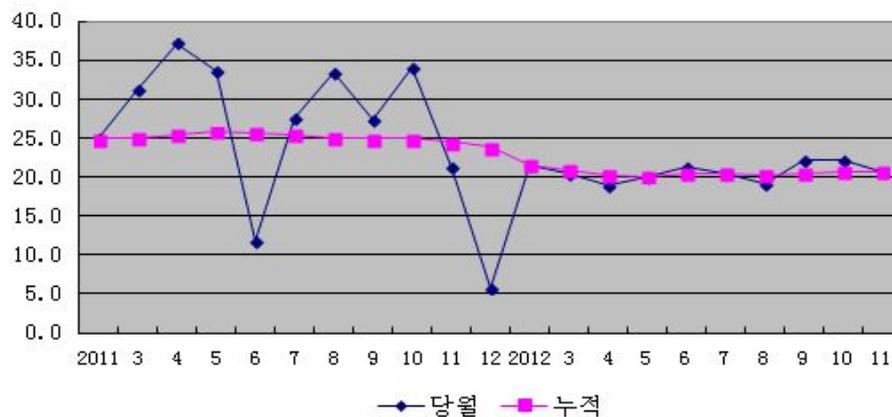
□ 내수의 버팀목 역할의 강화와 외수 증가속도의 둔화

- 고정자산 실제 투자율이 안정적임. 2012년 1-11월 도시 투자 증가율은 20.7%로 전년 동기대비 3.8%p 하락하였지만 실제 증가폭은 상승하였음.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22.8%로 전년 동기대비 8.7%p 하락하였고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16.7%로 13.2%p 하락하였으며, 인프라시설 투자 증가율은 13.9%로 전년 동기대비 8%p 상승하였음.

<그림 4> 경공업, 중공업 부가가치 (% , 당월)



<그림 5>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현가, %)



- 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함. 2012년 1-11월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 증가율은 14.2%로 전년 동기대비 2.8%p 하락하였지만, 실제 증가율은 12%로 전년 동기대비 0.6%p 상승하였음.
- 요식업, 진주보석, 오락과 체육, 가전제품 등 소비가 줄어들고 자동차, 부동산이 둔

화되었는데 이는 도시 중등소득자의 소비 증가율의 둔화와 소비 부양책의 퇴출이 반영된 것임.

- 식량(식용유)과 식품, 의류와 방직물, 통신기기, 일용품의 성장속도가 비교적 빠르는데 이는 도시 저 소득자와 농민공 소득이 비교적 빨리 증가함을 반영한 것임.

<그림 6> 사회소비품 소매액 증가율 (불변가, %)



- 수출입 증가폭이 현저하게 다시 하락하고, 순수출 증가가 비교적 빠름. 2012년 1-11월 수출 증가율은 7.3%로 13.8%p, 수입 증가율은 4.1%로 22.3%p 하락하였으며, 무역 흑자는 1,99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하였음.

□ 고용창출 형세가 비교적 좋음.

- 2012년 1-10월 도시 신규 취업자수가 1,124만 명에 달하였고 농촌의 외지근무(外出 务工) 노동자가 16,867만 명에 달함.
- 노동자 구인난과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난이 병존하고, 중소기업과 수출 지향성 기업이 구인난을 겪는 등 취업구조와 산업구조에 문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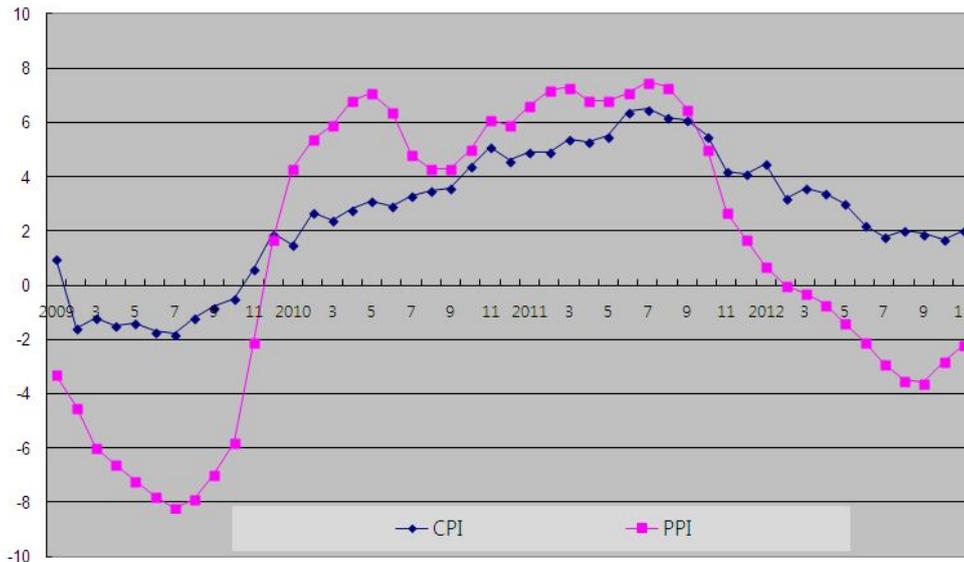
□ 전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공업품 가격·식품·서비스·부동산 가격 추세에 큰 차이나 나타남.

- 2012년 1-11월 CPI 상승률이 2.7%로 전년 동기대비 2.8%p 하락하였으며, 8월 이후

식품·돼지고기·서비스업 가격이 반등하였음.

- PPI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1-11월에 1.7% 하락하여 전년 동기대비 8.4%p 하락하였음.
- 판매액과 판매면적에 따른 상품주택 가격 상승률은 6.5%로 0.4%p 하락하였음.

<그림 7> 주민소비가격과 공업생산자 물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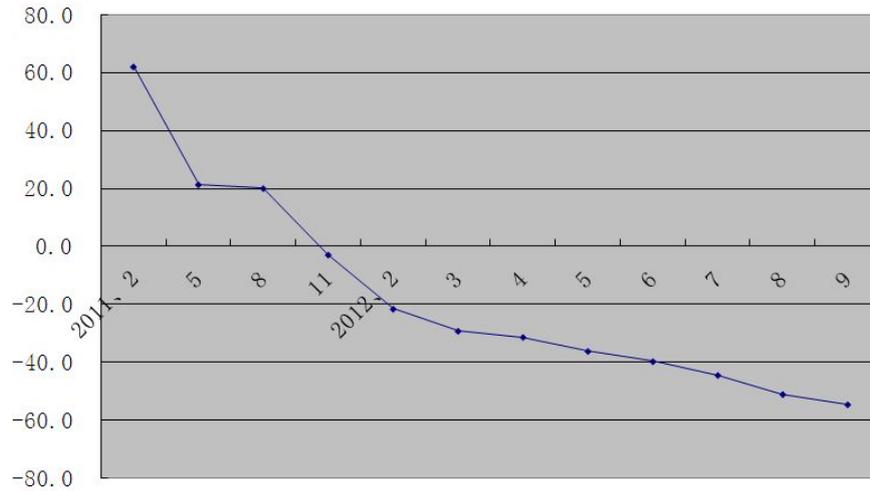


□ 결론

- 경제가 취약하지만 합리적인 구간에 있음. 고용창출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경제운영이 합리적인 구간에 있으며, 물가압력이 완화되었지만 경제성장이 잠재 성장보다 낮아 경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함.
- 경제가 하락한 원인은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 객관적인 요인이 있는 동시에 수출 감소, 부동산 투자 감소, 재고주기 조정 등 요인이 있음.
- 공급 조정폭이 크지만 수요 조정폭이 작으며 재고의 주기적인 조정은 경제하락의 중요한 요인임. 이번 재고 조정으로 인해 지난 3개 분기의 경제가 0.7%p 하락하였음.
- 1981~1989년, 1990~1999년, 2000~2009년 3개 중기 주기에 2~3개의 재고 주기가 포함 되어 있으며, 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마이너스 기여도가 각각 0.5%와 -0.7%였음.

- 자체 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주로 인프라시설 투자를 통해 경제의 안정성을 견인하였음.

<그림 8> 재고 증가 속도



나. 중국 경제발전의 문제점

□ 기업경영의 어려움

- 일부 산업과 기업의 생산과잉 문제 (철강, 비철금속, 건축자재, 화학공업, 섬유업, 자동차 등)
- 기업의 실제 용자비용, 물류비용, 인건비가 높은 수준을 유지
- 출하가격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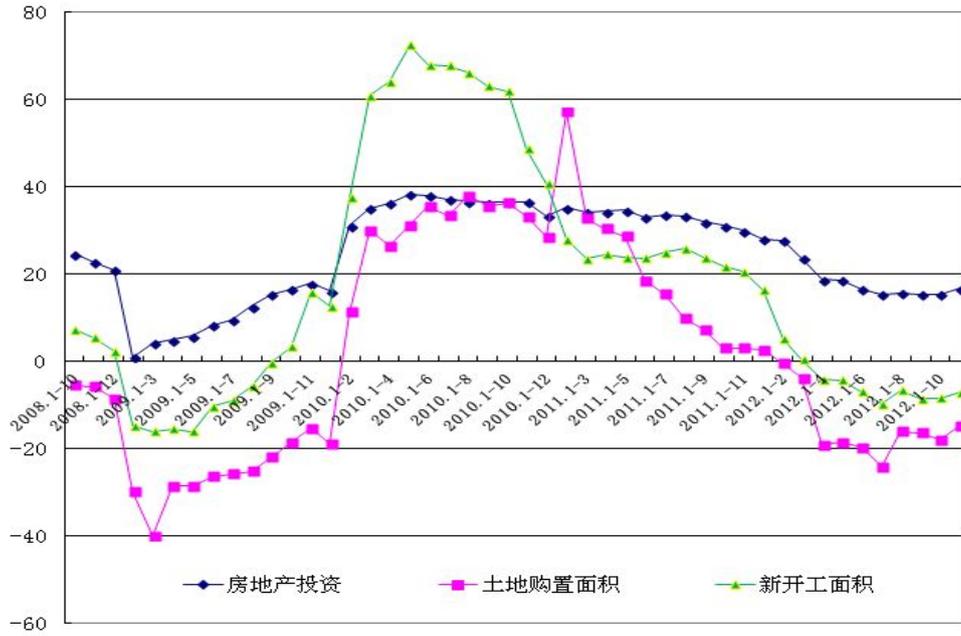
□ 부동산 투자 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의 진퇴양난

- 투자, 소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부동산은 지주 산업임.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버블을 유발하고 소득격차를 확대시켰음.
- 지방재정과 용자 플랫폼이 지나치게 토지와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은행과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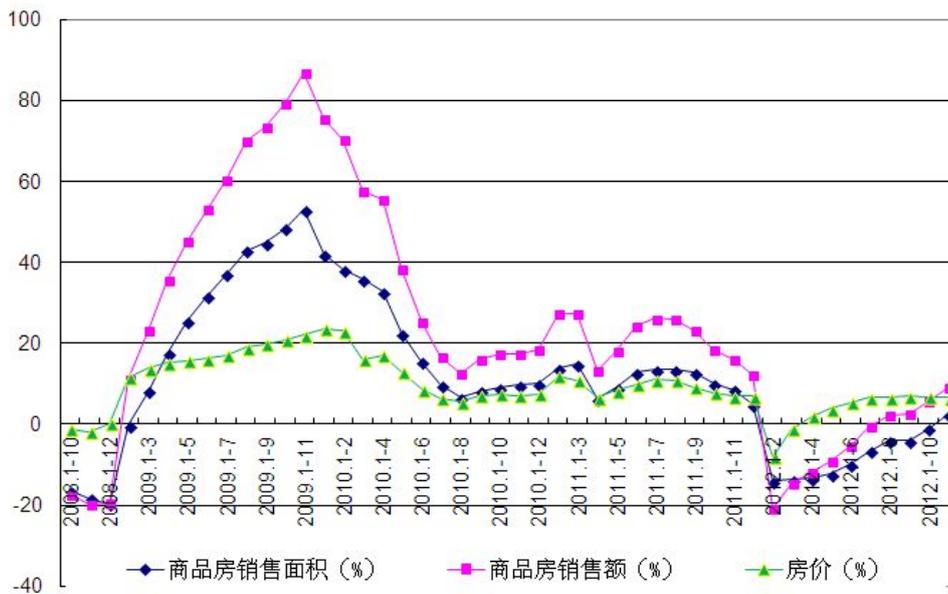
간대출이 이에 개입됨.

- 부동산 투자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부동산가격이 상승함.

<그림 9> 부동산 투자 추이



<그림 10> 부동산 시장 추이



□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

- 10조 7천억 위안의 지방정부 채무에서 정부가 상환책임을 가진 채무가 6조 7천억 위안 (62.6%)이고, 정부가 담보책임을 가진 채무가 2조 3천억 위안(21.8%)이며, 정부가 일정한 구조책임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기타 관련 채무가 1조 7천억 위안(15.6%)임.
- 2011년 2조 1,536억 위안을 대출하고, 2조 1,533억 위안을 상환하였음.
- 2011년 중앙정부의 채무 잔액은 7조 7천억 위안이고, 총 합계액이 18조 5천억 위안으로 GDP 총량의 44%를 차지하였음.

<표 3> 지방정부 용자 플랫폼 (억 위안, %)

연도	상환책임		담보책임		구조책임		합계	
	채무액	비중	채무액	비중	채무액	비중	채무액	비중
2011	18,684	27.8	3,646	15.6	3,916	23.5	26,247	24.5
2012	12,983	19.4	2,972	12.7	2,448	14.7	18,403	17.2
2013	7,991	11.9	2,266	9.7	1,938	11.6	12,195	11.4
2014	6,177	9.2	2,273	9.7	1,491	8.9	9,942	9.3
2015	4,935	7.4	1,781	7.6	1,297	7.8	8,012	7.5
2016	16,340	24.3	10,432	44.6	5,606	33.6	32,377	30.2
합계	67,110	100	23,370	100	16,695	100	107,175	100

□ 일부 지역의 금융리스크

- 은행 부실 대출율이 연속 3년간 상승하여 1% 내외에 달함.
- 기업 간의 상호 미지급액이 많아짐.

다. 국내 경제성장 여건

□ 거시조정 목표의 변화

- 2008년 4/4분기~2010년의 성장 유지 단계: 4조 위안 등 경기부양책 실시
- 2011~2012년 초의 물가 안정 단계: 2010년 12월 중앙경제 공작회의에서 안정적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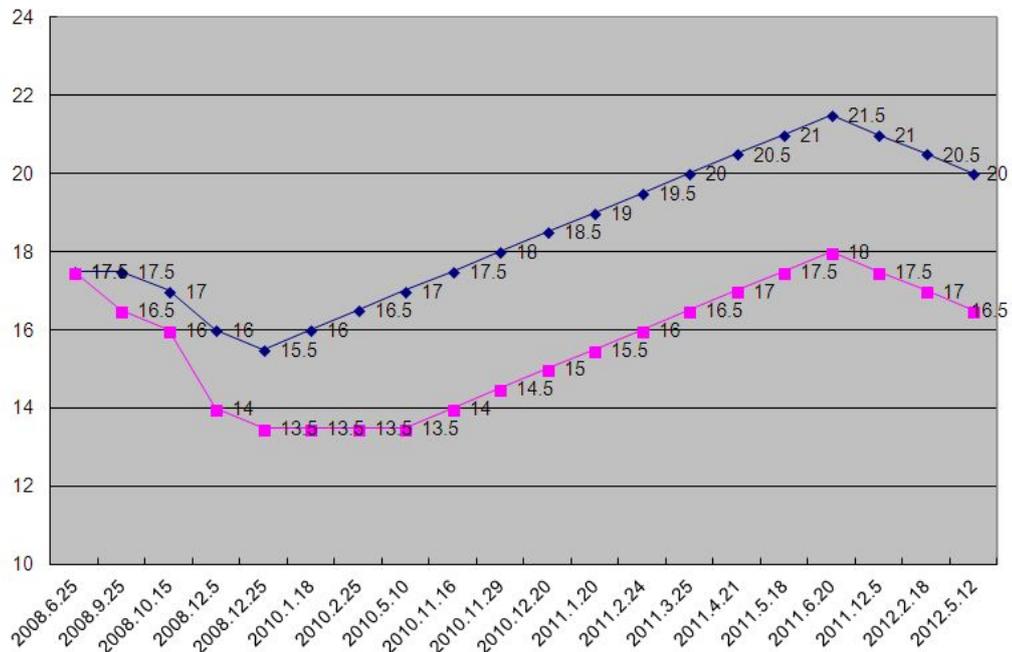
빠른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인플레이션 통제 사이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해야 함을 제시

- 2012년 5월 2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경제성장의 안정화를 더욱 중요한 위치에 두고 내수확대 정책을 적극 실시해야 함을 제시

□ 안정적인 통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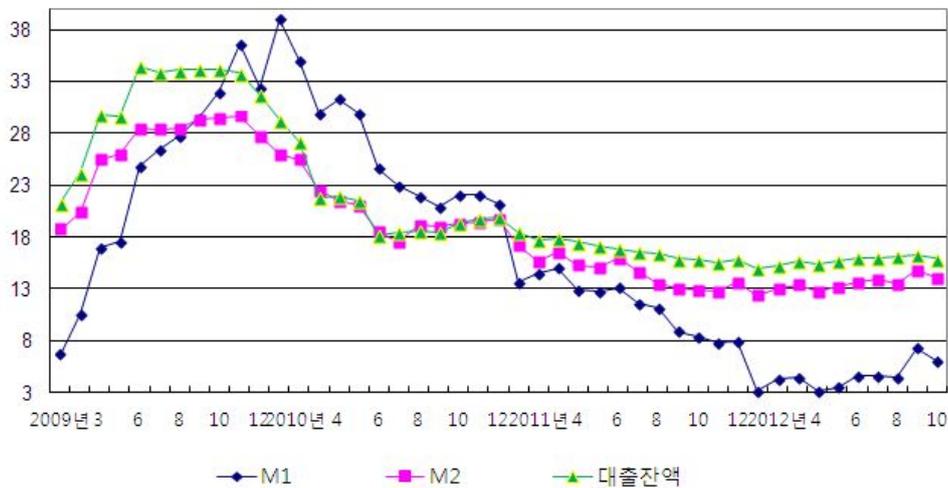
- 2011년 12월 1일부터 3차례에 걸쳐 기준율을 인하하였지만, 여전히 비교적 큰 조정여지가 있음.
- 2012년 6월 8일에 기준율을 0.25%p 낮추었고 7월 6일에 금리를 0.25%p와 0.31%p 낮추었음.
-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함. 1~11월 위안화 대출이 7조 7,500억 위안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9,191억 위안 증가하였음. 11월 말의 M1과 M2는 각각 5.5%와 13.9%였음.
- 역환매는 이성적인 선택임.

<그림 11> 예금 기준율



- 재고조정 속도가 더디고 9월부터 PMI지수가 반등하였으며, 원자재 재고, 완성품 재고 조정이 둔화되었음.
-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인프라시설 투자가 지속됨.
- 금융, 도시화, 민간투자 등 구조적 개혁을 추진함.

<그림 12> 신용 대출 증가율 (%)



라. 2013년 경제성장 전망

- 고정자산 투자는 여전히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임.
 - 제조업 투자는 안정적으로 하락할 것임. 기업용 설비 투자가 노동력, 에너지절약과 배출감소, 산업이전, 재고증가 등을 대체하여 투자를 견인할 것이고 투자 증가율은 22%로 예상됨.
 -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15%로 예상됨.
 - 인프라시설 투자는 계속하여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고정자산 투자의 명목 증가율이 20.8% 내외였는데 2013년에 2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임.

- 농민 소득수준의 지속적인 증가는 소비확대를 뒷받침해 줄 것임.
- 새로운 의료개혁 방안, 농촌 양로보험의 전면적인 보급 등 사회보장제도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도농주민의 저축 총액이 35조 위안으로, 일인당 2.5만 위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임.
- 2012년 사회소비품 소매액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과 실제 증가율이 각각 14.2%와 12%를 달성하였음.
- 2013년 사회소비품 소매액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과 실제 증가율은 각각 14.6%와 12%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대외무역 흑자가 감소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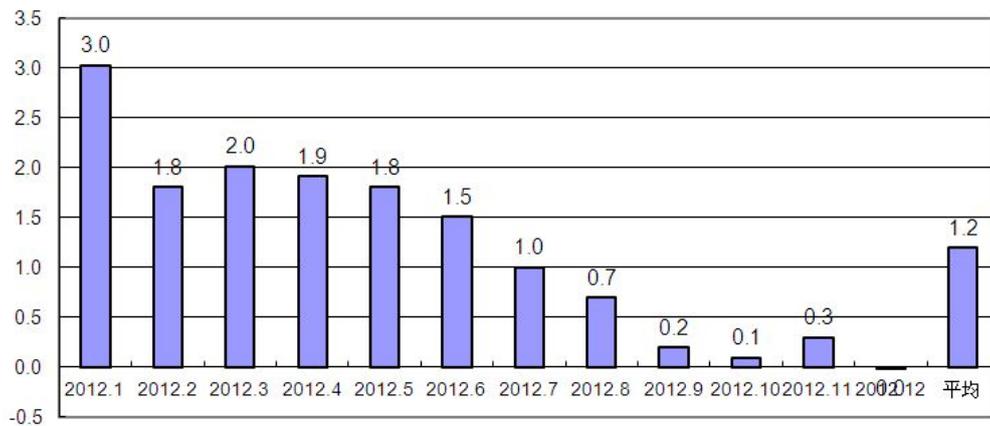
- 복잡한 세계경제에 대응하여 장기전을 준비해야 함.
- 세계경제가 하락할 것임. 세계경제 총량에 대한 중국 수출량의 탄성은 5 내외임.
- 2012년 수출은 2조 310억 달러(7% 증가), 수입은 1조 8,130억 달러(4% 증가), 무역 흑자는 2,18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30억 달러(41%) 증가하였음.
- 2013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각각 8% 증가하고 무역흑자는 2,3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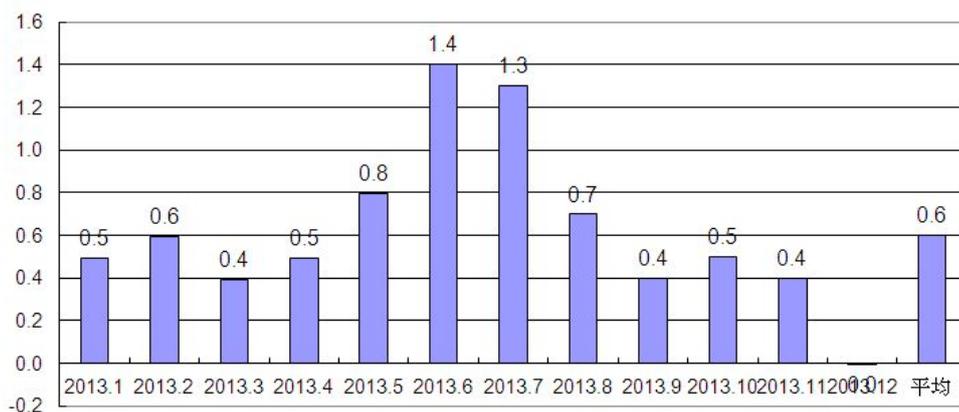
- 국제 유동성이 풍부하여 주요상품 가격의 상승압력이 있지만, 전 세계 생산과잉과 더딘 경제회복으로 인해 1차 제품의 가격은 대폭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국내 경제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근처에서 변동할 것이고 특히 제조업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공업 소비품 가격은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식량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그중 돼지고기 가격은 2013년 상반기에 상승주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됨.

- 저급 노동비용이 상승하고, 노동 집약형 서비스업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물, 전기, 천연가스 등 자원가격과 환경보호 비용, 자원세 개혁의 추진이 물가를 1.5% 상승시킬 것임.
- 2013년 CPI는 3% 내외로 그중 이월효과가 0.6%p이며, PPI는 0% 내외로 그중 이월 효과가 -0.8% 내외일 것으로 예상됨.

<그림 13> 2012년 주민소비가격의 이월효과 (%)



<그림 14> 2013년 주민소비가격의 이월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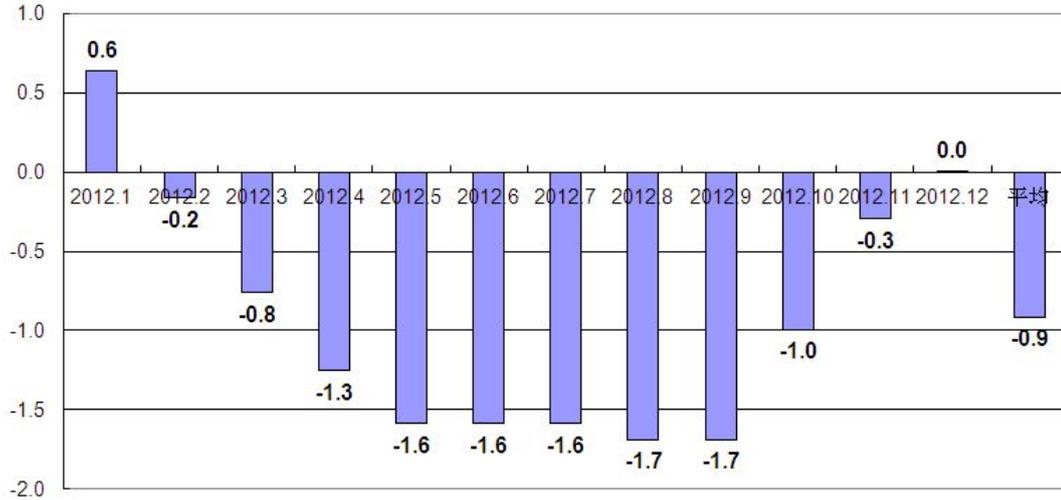


□ 경제성장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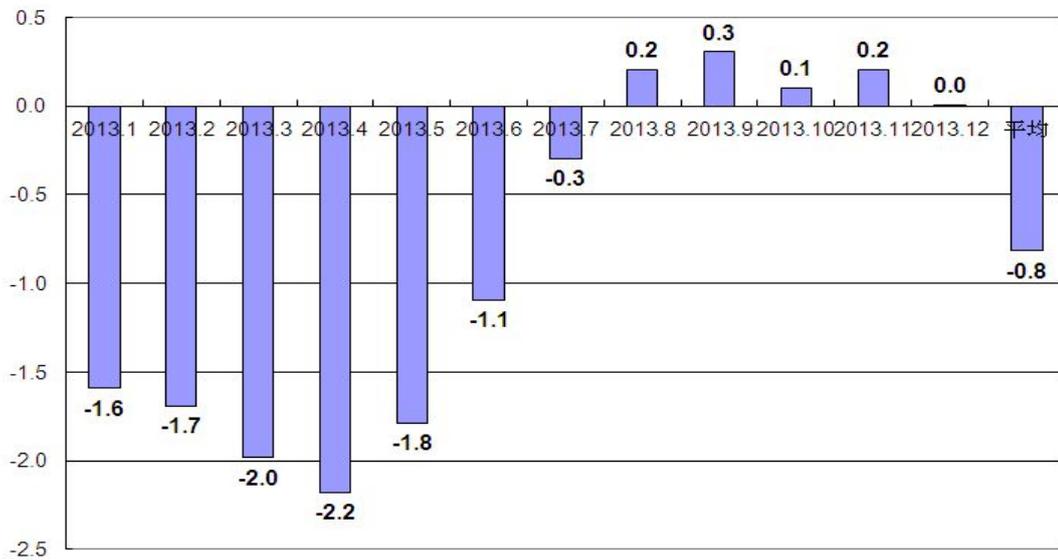
- 2012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7.9%였고 2012년 한해의 경제성장률은 7.7% 내외였음.
- 2013년 GDP 성장률은 8% 내외로 경제가 더디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됨.

<그림 15> 2012년 공업품 출하가격의 이월효과 (%)



<그림 16> 2013년 공업품 출하가격의 이월효과 (%)



마. 거시조정 정책 동향

□ 거시조정 정책 원칙

- 안정적이고 착실하게 추진: 경제성장, 물가, 고용창출, 정책의 안정화, 구조조정과 개혁 촉진, 민생 혜택
- 낙후 생산력의 도태와 M&A를 추진하는 시점에 전략적 신흥 산업과 현대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며, 수출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시점에 내수를 확대시키며, 기업의 투자 의지가 크지 않고 투자 능력이 높지 않은 시점에 투자의 안정적인 증가를 유지함.

□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

- 일정한 재정적자를 유지하고 지출구조를 고도화시킴.
- 구조적 감세를 추진: 소미형 기업 소득세, 영업세 감세, 서비스업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을 시범 추진
- 민생, 삼농, 낙후 생산력 도태, 인프라시설 건설 등을 추진함.

□ 안정적인 통화정책

- 신용대출이 합리적으로 증가하고 광의 통화는 14% 내외 증가하여 2012년 신규 위안화 대출이 8조 3천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2013년에는 9조 3천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기준율이 적절히 하락할 것임.
- 신용대출 구조가 고도화 될 것임. 더욱 많은 신용대출 자금이 실물경제 특히 "삼농"과 중소기업, "12.5"규획의 인프라시설 사업, 보장성 주택, 자가용 주택과 개선용 주택 수요 충족에 투입될 것임.

□ 농산품의 유효한 공급 확보

- 주요 농산품의 공급을 확보함. 식량 재배면적을 안정화하고, 농업생산 보조금을 증가하며 식량의 최저 구입가격을 안정적으로 인상하고 식량 주산지에 대한 투자와 수익보상을 강화함.
- 농촌의 인프라시설 건설을 강화: 농촌 수리, 전력망과 위험한 주택 개조, 환경 관리, 농촌 도로, 시장 유통체계 구축 등

□ 경제구조 고도화

- 제조업의 고도화: M&A, 해외 M&A, 과잉생산과 낙후 생산력 도태
- 전략적 신흥 산업을 발전: 기술개조에 대한 재정과 용자 지원을 강화
-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함.
- 도시화 추진을 강화: 고정적으로 취직된 농민공이 분할불 방식으로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하도록 권장

□ 개혁 강화

- 기존의 개혁 조치를 실시함.
 - 금리 시장화 개혁
 - 서비스업 분야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개혁 범위를 확대
 - 민간 경제발전 실시세칙과 에너지, 철도, 금융 등 분야의 진출을 권장
 - 자원세의 종가징수 (석유, 석탄 등)
- 구조조정에 유리한 개혁을 추진함.
 - 소득분배 체제 개혁
 - 석탄, 전기, 제철, 천연가스 등 자원가격 개혁
 - 독점산업 개혁
 - 행정관리 체제 개혁
- 다음 단계의 개혁 방안 검토

□ 민생보장을 강화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최선을 다함.

- 최저기준을 지킴: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가정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함.
- 중점 강조: 취업 안정과 확대, 대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청년 취업을 보장함.
- 정책 완비: 사회보장 체계와 보장성 주택 건설을 확보함.
- 여론 유도: 부지런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

□ 2013년 10월에 개최될 제8기 3중 전회를 주목해야 함.

<질의응답>

질문 1.

토지개혁과 관련해서 중국은 서방국가처럼 토지 사유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데, 중국의 토지개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변 1.

중국의 토지소유는 집단소유제와 국가소유제로 나뉜. 이 가운데 집단소유제는 농촌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함. 정부가 집단소유제 토지 매입을 통해 국가소유제로 전환시킨 후 건설한 주택만이 합법적이며, 사람들이 사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 합법적인 주택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음.

기존 농촌 토지는 임업용 농지, 농업용지, 농민 주택용지, 공동 건설용지로 구분됨. 이러한 4가지 종류의 토지는 모두 집단소유제이고, 이중 임업용 농지와 농업용지는 이미 농민에게 도급 주었음. 농촌 토지는 집단소유제이기 때문에 농민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자신이 사는 주택을 판매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농촌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도 못함. 즉 농민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자원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로 진출할 경우 월급에 의해서만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도시화 발전에 있어서 농민공의 주택문제 해결이 한층 더 어려워짐. 일부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이 주택농지에 주택을 건설한 후 사적으로 판매하는데 이런 주택을 "소산권 주택(小產權房)"이라고 함. 이 외에 여러 개 농촌이 합병을 통해 추가로 늘어난 주택용지와 건설용지에 건설한 주택 역시 "소산권 주택(小產權房)"이라고 함. 이런 소산권 주택은 토지 출양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가격이나 임대가격이 일반적인 주택보다 훨씬 저렴하고 도시에 진출한 대다수 농민공은 바로 이런 소산권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개인적으로 가능한 농촌의 모든 종류의 집단소유제 토지를 사유제로 전환시키고, 이를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최소한 농촌의 건설용지를 사유제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토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러한 개혁을 추진할 경우, 대량의 주택 건설용 토지가 마련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임. 즉 소산권 주택을 토지 출양금이나 세금 납부 등 구체적인 방식을 통해 합법화 되도록 추진해야 함. 이러한 토지개혁은 도시화 추진과 관련된 개혁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식량안전 문제 등 우려 때문에 농업용지에 대한 사유제 전환은 어려울 것 같음.

질문 2.

2012년 12월 중국 발개위(發改委)에서 6조 위안의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 하반기에 지방정부에서도 2015년까지 10조 위안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어서 2013년 투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자료를 보면 오히려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2012년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투자계획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지방정부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지금 엔화가 절하되고 있는데 향후 위안화 관련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답변 2.

국가 발개위(發改委)와 지방정부의 투자계획은 "12.5"계획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 것이고 그중 대부분이 인프라시설 투자에 집중되었음. 사실 2012년 5월 이후 경제 발전을 위해 각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일부 지역에서 앞당겨 실천에 옮긴 것임. 예컨대 지하철, 고속철도 건설은 2~3년 앞당겨 투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 향후 3년간 제조업 투자 증가속도는 어느 정도 적절히 완화될 것이지만 인프라시설 투자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중국은 저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투자속도가 완화될 경우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속도가 증가해야 함.

이런 인프라시설 투자는 주로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데 지방정부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는 융자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것임. 개인적으로 이런 은행 플랫폼보다는 지방에서 채권 발행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함. 즉 융자 플랫폼은 사실상 기업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높은 이자율로 인해 융자비용도 상승하게 됨. 채권을 발행할 경우 융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융자효과도 더욱 이상적일 것임. 그 외 민간 기업이 융자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민간기업, 산업,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함.

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전 세계 경제는 여전히 회복단계에 있고 주요상품 가격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대규모적으로 인프라 시설을 건설해야 함. 따라서 향후 3년간 중국의 인프라시설 투자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2008년이나 2009년의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임.

위안화 환율과 관련, 아시아 각국은 일본의 대규모 통화 확장 정책을 미리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 적이 있음. 과거 아시아 금융위기의 발생은 일본 엔화의 대규모적인 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일본이 2%의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통화를 발행할 경우 엔화에 대한 위안화는 비교적 큰 폭으로 절상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1997년의 금융위기 발생하였을 때와 달리 현재 일본이 중국이나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작아졌음.

중국은 여전히 미 달러에 대한 환율 변화를 중시해야 함. 미 달러가 절상될 경우 위안화의 절상폭이 어느 정도 축소될 것이고, 미 달러가 절하할 경우 위안화의 절상폭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미 달러의 환율 변화에 주목해야 함.

중국은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융개혁을 특별히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향후 3~5년간 일본이 대규모로 통화를 발행할 경우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그 추진 속도를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할 것임.